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남궁도

# 광주 “남궁도, 너를 믿는다”



‘조커’로 활용...부산 상대 후반기 첫승 기대  
전남, 산드로 앞세워 FC 서울전 필승 다짐

여름방학을 마친 K리그가 팬들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 8일 오후 전국 7개 경기장에서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14라운드 경기가 일제히 열린다.

광주상무는 8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역대 전적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승점쌓기에 나선다.

광주는 K-리그에서 절대 약체로 꼽히지만 유독 부산만 만나면 역대 전적 8승4무4패로 필승날고 있다.

여기에 부산은 최근 박성화 감독이 부임 10여일만에 한국올림픽대표팀 감독으로 이탈, 김관중 감독 대행으로 팀이 꾸러지면서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광주가 승수를 올리기에 이만한 호재도 없다.

광주는 지난 1일 FA컵 16강전과 울스타전에서 감각적인 슛으로 강인한 인상을 남겼던

공격수 남궁도를 후반 조커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울스타전에서 ‘하우젠 바람의 여신 타이밍’때 골을 작렬, 에어컨을 차지하는 행운을 맞은 남궁도는 올 시즌 정규리그 13경기에서 4골을 기록할 정도로 최상의 골 감각을 뽐내고 있다.

광주는 또 K리그 95경기를 소화한 베테랑 수비수 한태유를 센터백으로 마찰준, 여효진을 스타백 라인으로 배치, 상대의 공격라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부산은 이번 광주전에 신임 용병 차치지와 씨열을 첫 실전 투입할 예정인데, 광주가 그동안 용병선수에게 유독 약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 승부처로 보인다.

전남도 이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인다.



지난달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축구훈련을 마친 만 10세 이하 ‘GSFC 유소년클럽’ 회원들이 광주상무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상무축구단 제공

## 광주상무 어린이 축구교실 ‘GSFC 유소년클럽’ 발대

“우리는 광주축구 꿈나무들!”

광주상무 불사조 축구단은 8일 오후 6시 광주월드컵경기장내 2층 리셉션장에서 광주상무 어린이 축구교실 ‘GSFC 유소년클럽’ 발대식을 개최한다.

광주상무 어린이 축구교실인 ‘GSFC 유소년 클럽’은 지난 6월 한달동안 80여명 회원(만 6세 이하 24명, 만 8세 이하 32명, 만 10세 이하 24명)을 모집하고, 지난달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첫 훈련을 시작한 뒤 매주 2회(화, 금요일) 다양한 축구 기술을 연마중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나무석 광주상무축구단 단장을 비롯해 이강조 광주상무 감독 및 주장 강용 선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유소년 축구단은 발대식 후 에스코트 키즈 및 하프타임을 통해 미니 축구게임으로 관중들에게 첫 인사를 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U-17 월드컵축구 출전 북한 청소년대표팀 입국

북한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참가국 중 가장 먼저 입국했다.

북한 청소년 대표팀 선수단은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7일 오전 11시 1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입국 수속을 밟고 40여 분 뒤에 모음을 나타냈다.

안예근(49) 책임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선수 23명은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한 똑같은 차림이었으며 공항에 국내 취재진 20여 명이 몰려 든 탓인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지난 3월 남북체육교류협회 초청으로 국내에서 한달 간 전지훈련을 한 선수들로 구성된 북한 대표팀은 입국 뒤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는 않았다.

김경석 남북체육교류협회 상임위원장은 그러나 “FIFA 공식일정에 들어가는 14일 제주도에 도착 후 대외 목표를 밝히는 등의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전지훈련 때 대표팀과 비교하면 7~8명이 바뀌었지만 주축은 거의 그대로”라고 말했다.

김경석 위원장은 이어 “북한은 2005년 페루에서 열렸던 U-17 월드컵에서 8강에 올랐고 이번에는 4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서 훈련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 이 쪽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GA챔피언십 경기가 9일부터 열리는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골프장 18번홀 그린에서 7일 참가선수들이 연습라운드를 하는 동안 갤러리들이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 강철 前 전남코치 ‘박성화호’ 합류

‘박성화호’로 새롭게 출범한 올림픽축구 대표팀이 강철(36) 전 전남 드래곤즈 코치를 보강했다.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7일 코칭스태프에 강철 코치를 합류시키고 베이백호에서 일했던 브라질 출신의 코사(43) 골키퍼 코치를 잔류하도록 했다.

박성화호는 이로써 홍명보 수석코치, 강철 코치, 코사 골키퍼 코치로 코칭스태프 구성을 끝냈다. 강철 코치는 1991년 청소년축구 남북단일팀 대표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컨페더레이션스컵 등 주요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측면 수비수 출신으로 1993~2004년 프로축구 부천 SK와 전남에서 활약했다.

홍명보 코치와는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픽부터 국가대표로 함께 뛰었다.

강 코치는 2005년부터 친정팀 전남 코치를 맡아오다 작년 연말 계약이 만료됐고 최근에는 잉글랜드 연수를 다녀왔다.

2000년부터 수원 삼성과 전남에서 골키퍼들을 길러오다 작년 8월부터 대표팀에 합류한 코사 코치는 베이백호의 외국인 코치진 중 유일하게 남게 됐다.

## 오초아 등 세계정상급 10월 경주서 샷 대결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 우승자들이 10월19일 경주 마우나오손골프장에서 샷대결을 벌인다.

국내 유일의 정규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2007’ 대회조직위원회는 올해 열린 4개 메이저대회 챔피언 중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우승자 수잔 페테르손(노르웨이), US여자오픈 우승자 크리스티 커(미국) 3명이 출전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에미암 마스터스에서 LPGA 첫 우승컵을 차지한 나탈리 겔비스(미국)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트로이카 신지애(19·하이마트)-지은희(21·캘러웨이)-안선주(20·하이마트) 등과 불꽃튀는 경쟁을 펼치게 됐다.

2002년 시작한 이 대회는 초대 챔피언 박세리(30·CJ)를 비롯해 안시현(23), 박지은(28·나이카골프), 이지연(22·하이마트), 홍진주(24·SK에너지) 등의 우승자를 배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북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7일 오전 고려항공 전세기편을 이용,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물오른 기량 최경주 메이저 정상 재도전

### PGA 챔피언십 내일 개막

아주 스포츠는 이 대회를 앞두고 우승 후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에 이어 최경주를 3위에 올려놓았다.

이런 평가는 최경주가 지난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 이후 놀라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메모리얼토너먼트부터 브리즈본 인비테이션까지 5개 대회에서 우승 두번, 공동 8위, 그리고 공동11위의 성적을 냈다.

초여름부터 눈에 띄는 최경주의 선전은 부쩍 높아진 페어웨이 적중률에서 나타난 정확한 드라이브샷과 쇼트 게임 능력에서 비롯됐다.

특급 대회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길고 질긴 러프를 피해가는 정교한 티샷에 버거 샷을 포함한 그린 주변에서 파를 지켜내는 쇼트 게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퍼팅 능력에서 최경주는 세계 정상급 실력을 뽐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PGA챔피언십이 열리는 서던힐스골프장이 그리 길지 않은 전장이지만 페어웨이를 둘러싼 백백한 숲과 80개의 버퍼로 무장한 까다로운 코스.

페어웨이에 경사지가 많고 티샷이 떨어지는 지점이 아주 좁은데다 그린을 공략할 때도 특정 지점을 골라 떨어지지 않으면 버디를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오히려 최경주에게는 호재다.

멀리 쳐내는 장타력보다는 원하는 지점에 불을 가져다 놓는 컨트롤샷에서는 최경주가 정상급 선수들에 비해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최경주는 9일 오후 10시55분 유럽의 강호 헨릭 스텐손(스웨덴)과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의 감각을 느꼈던 헨터 메이(미국)와 함께 티오프한다.

이밖에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10일 오전 4시35분 10번홀에서,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카골프)은 9일 오후 9시40분 1번홀에서 각각 출발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